C4

ESG 경영으로 지역 상생…도시농촌 활력 불어 넣는다

※ 농협광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4개 도시농협·농촌 농협과 함께 농업인과 도시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고성신 신임 본부장과 올해를 출발한 농협 광주본 부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 을 강화하고 청년 농민이 성장할 수 있는 농업 토대 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 동림동 시대를 연 광주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대 표 브랜드 '빛찬들' 쌀을 내걸고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광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표 브랜드 '빛찬들' 육성·로컬푸드 확대로 농업소득↑=농협 광주본부가 주력하는 점은 '농업 의 효율화'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은 도시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매장은 농 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성장 해왔다.

로컬푸드 매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지난 2018 년 광주지역 총 매출액은 38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는 157억원으로 증가했다.

3년 새 매출이 4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농협 광주본부는 중·소농업인의 고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광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 농산물을 직거래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매장은 '광주 도·농상생 금요 직거래장터'이다.

금요 직거래장터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 기를 제외하고 11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시, 지역 농·축협, 농협하 나로유통은 협력해 다양한 농산물을 유통비용을 절 감한 직거래 가격으로 내놓고 있다.

매주 열리는 장터에서는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 다.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결제와 상품 수령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도 진행했다.

입학·졸업식과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위기에 처한 꽃 농가를 돕기 위해 대규모 화훼 소비촉진 행 사를 벌이기도 했다.

광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나눔' 을 벌여 이웃을 돕고 농업인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 도 노렸다.

광주 14개 지역농협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광주통합RPC)은 지난해 11월 '동림동 시대'를 열었다. 남구 대촌동에서 광산구 동림동으로 이전한 통합RPC 시설은 광주지역 쌀 35%를 가공·저장·유통하게 된다.

이번 준공은 지난 2019년 10월 이전부지가 확정 된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2008년 1월 개소한 기존 통합RPC 부지가 에너지밸리 산단에 편입되면서 13년 만에 이전·증축을 단행했다.

새로 조성된 통합RPC는 부지면적 1만5389㎡ (4655평), 건축면적 8858㎡ 규모다. 국비 12억 5600만원·시비 6억2800만원을 확보하고 14개 농협이 83억4400만원을 공동 출자하며 사업비 102억2800만원을 들였다.

병 건조·저장·가공시설을 갖춰 정곡 기준 일반 쌀은 시간당 5t, 친환경 쌀은 시간당 1.5t을 가공·저 장할 수 있다. 기존(대촌)보다 가공은 시간당 1.5t, 가공·저장 능력은 1000t 향상됐다. 화상으로 이물 질과 희나리쌀 등을 감별하는 색채이물선별기도 5기 도입해 선별효과를 높였다.

연간 도정능력은 1만400t(1일 52t)에 달하며, 건 조능력 9000t(1일 150t), 저장능력은 7000t이다.

광주지역 14개 농협은 광주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빛찬들'을 내건 이달 중 '7분도미' (七分度米), '5분 도 현미'를 새로 내놓으며 쌀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소득 증대 직원농촌봉사단 영농인력 지원 각종 사업연계 청년농업인 육성 '사랑의 1004운동' 지속 추진 고향사랑기부금 성공 정착 주력

로그램이다

농협 광주본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사 랑의 1004 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이 운동은 지 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랑의 1004 운동'은 광주지역 범농협 임직원들 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 동이다

인사철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된 화분을 모아 경매 형식으로 필요한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금 전액 을 모금하는 '축하화분 경매'도 있다.

'사랑의 1004 운동'으로 모인 성금 5억800만원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2월 '농협 광주본부가 그린 ESG 추진단'을 신설하며 농업환경을 살리고 지역 상생하는 ESG 경영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광주지역 14개 농협은 광산구 동림동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신축 이전하며 '빛찬들 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획이다. 기존 쌀 상품으로는 무농약 친환경 '빛찬들 쌀' 과 '무등산 쌀', 빛찬들 '궁답 쌀' 등이 있다.

'빛찬들 7분도미'는 쌀눈과 쌀겨를 살려서 도정 해 새롭게 출시했다. 10분도 이상 일반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미보다 부드럽고 고 소한 맛이 돌아 광주 쌀 농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 고 있다.

○ ESG 추진단 발대·일손 돕기···도시 농촌에 활력을 등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영농기를 맞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사 현장에 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인력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농협 광주본부는 '화목농촌봉사단'을 꾸려 매주 이 틀 영농인력 지원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일손을 도 운 농협 임직원 인원은 700명이 넘는다. 농가주부모 임 등 소비자단체 회원들도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됐다. 농협 광주본부는 조합원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쓰 고 있다.

농협과 광주시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지망생들에 게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농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팜' 경영 실 습과 로컬푸드 직매장 견학 체험 등이 대표적인 프 은 그동안 어려운 이웃 627명을 위한 수술비·치료 비로 쓰여졌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역과 상생을 넓히기 위해 올해 2월 말 '그린 ESG 추진단'을 발대했다.

신설된 ESG 추진단은 환경보호 활동과 농촌 영 농인력지원, 지역사회 나눔,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추진 등을 도맡는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 업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농협 광주본부는 우수 농특산물이 지역을 넘어 수도권 등 여러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내년 시행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광주본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실무추진단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 창구 역 할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개인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기부금을 내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세수 부족과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과 농촌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성신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농업 현장 찾아 해결책 모색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

고성신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올해로 농협에서 30년째 일하며 농업인과 함께 달려왔다. 전남대학교에서 농업기계공학을 전공한 고 본부장은 지난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여수와 영광 등 광주·전남 농사 현장 곳곳을 누볐다.

고 본부장은 올해 취임 첫날 광주 특산물 '지 산딸기'가 재배되는 북광주농협 조합원 농가 를 찾아 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같은 날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소비지 유통혁신을 위한 실천과 지원 방향을 논의했 다.

"최근 20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해왔습니다. 앞으로 풀어 나갈 과제가 많기에 무조건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본부장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은 지난 해를 계기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 한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농협 광주본부는 '빛찬들 농산물 제값 받기'와 '디지털 금융 기반 안정적 수익 확보',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 정착', '농업·농촌 현장과 소통으로 농협 혁신' 등 네 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광주 14개 농협은 광산구 동림동에 광주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를 신축·이전하며 오랜 숙원을 풀었다.

한층 현대화된 쌀 가공시설은 광주 농산물 대표 브랜드 '빛찬들' 쌀 품질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광주본부는 올해 '쌀 판매로! 하나로!!' 운동을 벌이며 빛찬들 쌀 알리기에 나선다.

올해 20kg 들이 광주 쌀 20만포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는 '금 한 돈 찾기' 경품행사를 벌이며 광주 쌀 소비를 촉진하고 유관기관들 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 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여건에 대비해 미래 수익원을 찾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농협 광주본부는 디지털금융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업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 보하려고합니다. '핀테크'라 불리는 금융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비대면 영업이 점차 확산하 면서 농협을 비롯한 금융환경은 급변하고 있 습니다. 농협 광주본부는 차별화된 영업 역량 을 바탕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마이데이 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와 '콕뱅크'등 사 업을 통한 미래의 디지털 고객을 확보하겠습 니다."

내년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농정 지원 에도 힘을 아끼지 않을 작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민의 애향심을 북돈 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농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범 농협 차원 노력을 하



동림동 RPC 신축·이전 '빛찬들 쌀' 품질 강화

마이데이터·콕뱅크 사업 미래 디지털 고객 확보

농촌융복합산업·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창출·삶 향상

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생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실무추진단 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계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농정활동을 펼치겠습 니다."

고 본부장은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서도 농업·농촌을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을 공 급한 농업인에 감사를 전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는 소중한 자산인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 준한 관심을 부탁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농업·농촌은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음 속고 향이며 삶의 근간이 돼온 농업·농촌이 고향사 랑기부제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 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 농협은 농촌융복합산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 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성신 신임 본부장은 올해 취임식 대신 광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농산물 유통 현안을 논의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올해도 '함께하는 농촌봉사단'을 만들어 영농촌 부족한 일손을 보탠다.



농협 광주본부의 전통적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1004 운동'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지속되며 위기에 처한 이웃 627명의 수술과 치료를 도왔다.